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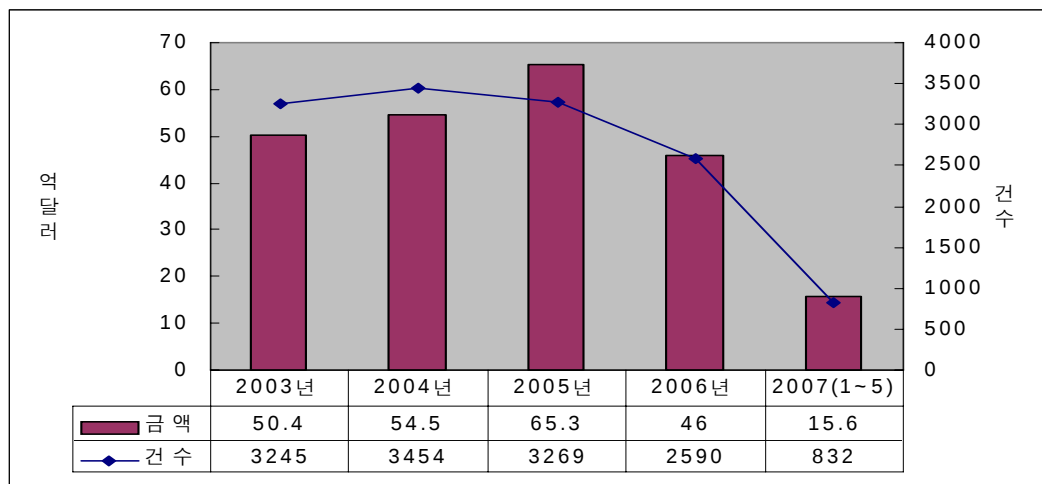
일본의 對중국 투자 현황과 시사점

I. 일본의 對중국투자 현황

□ 일본의 중국투자 감소중

- 일본의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2001년 중국이 WTO가입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65.3억 달러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2006년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였고 2007년 들어서도 5월현재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1%, 금액은 17.5%가 감소하였음.
- 이처럼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건축정책, 인건비 등 관련비용 상승, 세금, 무역 등 우대정책 폐지 및 축소,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되자, 일본내로 투자 회귀,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투자가 이전된 것으로 파악됨.

일본의 對중국투자 추이



자료 : 중국 상무부

- 중국 상무부 기준, 2006년말 누계기준 일본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580억 달러, 투자기업수는 약 4만개를 초과하였고, 2006년에는 홍콩과 영국령 버진군도를 제외한 중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

□ 對아시아 투자중 중국 투자 비중 감소

- 2006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대 아시아 총투자금액의 35.9%로 2004년 55.7%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의 對아시아 해외투자 비중

(단위: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세계 전체		30,962	45,461	50,165
아시아		10,531	16,188	17,167
중국	금액	5,863	6,575	6,169
	비중(%)	55.7	40.6	35.9
아세안	금액	2,534	4,276	6,038
	비중(%)	24.1	26.4	35.2
인도, 베트남	금액	139	420	979
	비중(%)	1.3	2.6	5.7

자료 : Jetro

- 최근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중국 이외의 아세안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 인식되고 있는 베트남, 인도에 대한 투자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
- 아시아에 대한 투자 증가가 주춤한 대신, 영국, 네델란드 등 EU에 대한 투자가 세계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2005년 78억 달러(전체 대비 17.3%)에서 2006년 179억 달러(전체 대비 35.7%)로 급격히 상승함.

II. 일본의 對중국 투자 전략 변화

□ 투자의 목적은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

- 일본은 1987년부터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1997년까지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및 중국의 정책 불투명성으로 투자가 잠시 주춤한 이후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투자가 확대됨.

- 투자 초기의 목적은 생산비 절감형 노동집약형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13억 인구의 내수시장 진출을 노린 대기업의 자본집약적 투자,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유통, 물류, R&D에 대한 투자가 확대.

□ 투자는 계속 진행형

- 투자형태도 연해지역 위주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단순 가공품목 위주의 생산기지에서 중·고부가가치 품목 및 내수시장 소비형 품목으로 전략을 전환
 -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부응한 중서부지역 진출,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가전, 기계 등 내수시장 진출 업종의 투자가 증가함.
- 일본이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하이테크 업종에 부합되는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업종은 중국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일본기업들의 중국투자 사례

- TOYOTA 자동차는 第一汽車와 합자로 2000년 천진에 자동차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년 장춘에 엔진법인, 廣州汽車와 합자로 엔진법인 및 자동차법인을 설립하여 소형차부터 고급차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 특히 2005년부터 중국식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생산한 소형차(Prius)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가속화
- 마쓰시타 전기(Panasonic)는 1987년 중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생산법인 44개, R&D센터 5개, 판매법인 5개, 물류법인 2개를 설립하였고, 2001년부터 PDP, 통신설비, R&D센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가와사키 중공업은 1999년 중국해양운수집단(COSCO)과 합자로 연간 65만GT의 조선소를 설립·운영해 왔으나, 2007년 6월 늘어나는 조선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대련에 양사 합자로 600억엔을 투자해 연산 150만 GT의 중국 최대 조선소를 2010년까지 건설기로 함.

Ⅲ. 일본기업들의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

□ 인건비 상승보다 매력적인 중국시장

- 일본은 최근 주강삼각주에서 시작된 임금 상승 및 인력난이 장강삼각주 등 기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아시아 기타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음.
- 엔지니어 등 기술인력의 평균임금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등 국가에 비해 낮고, 경리 등 관리직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한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함.
- 많은 일본기업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법률, 기술, 재무, 회계 방면의 고급인재가 부족하고 이러한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음.
- ⇒ 한국말을 사용하는 교포(조선족)의 활용,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등으로 한국기업들은 일본기업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 가능하며, 최근 유능한 조선족 변호사, 회계사, 기업 등 조선족 사회(communitiy)가 등장하고 있음.

□ 기업 소득세법 시행이후 느긋한 입장의 일본기업

- 중국에 투자된 일본기업의 대부분은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업종 등으로 중국정부가 중점 육성하려는 하이테크 산업으로서 소득세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15%의 세율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봄.
- 다른 아시아 국가의 기업소득세율이 평균 30%인데 비해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현재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 Jetro가 '07. 5월 일본 투자기업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기업이 향후에도 신규투자를 계속 할 것이라고 조사됨. 특히 신 소득세법이 기업의 생산에 일정부

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방마다 특색있는 우대정책이 있어 이러한 외자 기업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음. 다만, 2013년에 이르면 외자기업의 2免3減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어 일본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함.

⇒ 한국의 주력 투자업종인 자동차, 기계, 전자, 조선 산업은 내외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업종으로 한국의 지리적 이점, 한류 효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세계 제2의 큰 시장

- 많은 일본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우대혜택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고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고 투자하였으며 중국이 다른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향후 일본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고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특히 중국기업에게 고부가가치 첨단부품 및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의 경제가 투자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향후 중국에 대한 시각은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만 보지 말고 제도와 법규의 투명성,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화 과정의 과도기로서 미국 같은 소비력을 갖춘 큰 시장이 파생된다는 긍정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

선임조사역 이재홍(☎3779-6650)
연 락 처 : jhlee@koreaexim.go.kr